

성경이야기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인류 역사상 조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최초의 집필자는 모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성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모세 5경이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 6,000년 역사의 시점에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2,500년 후의 후손인 것이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본 2,500년 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이며 이는 곧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자손인 아버지 아르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위로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었다. 아담시대에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요셉에 의하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 삶의 터전을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은 이후 애굽의 박해를 받게 되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애굽의 왕은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라고 명령한다.

모세는 다행히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태어났고 죽어서 버렸다고 하고는 3년을 숨겨서 키웠으나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물에 띄워 보내게

된다. 이를 물놀이를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여 데려다 키웠다. 갈대 상자를 따라왔던 모세의 누이의 권유에 의하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유모이자 친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임을 교육받음과 동시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도 함께 받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다.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병사를 때려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브라와 결혼하여 게르솅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고 40년을 양치는 목자의 천한 신분으로 지내게 된다.

그의 나이 80세에 호렙산 열기나무에 입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 말쑥한 모세는 하나님이 추천하여 주신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내세워 함께 바로왕을 설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바로왕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하나님은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자재앙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이리다가는 애굽의 백성 전부를 잃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바로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난 바로왕은 너무 분하고 원통하여 애굽의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 가서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거듭하여 홍해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애굽의 병정들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냥 애굽에 놔두었다면 목숨이라도 연명할 수 있었는데 기어이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였다. 다급해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치니 바닷물이 갈라져 육지같이 길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하여 무사히 홍해를 건너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대략 2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각종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2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한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제도는 오늘날 기업운을 운영하는 조직의 모델이 되었다.*

수타와 요가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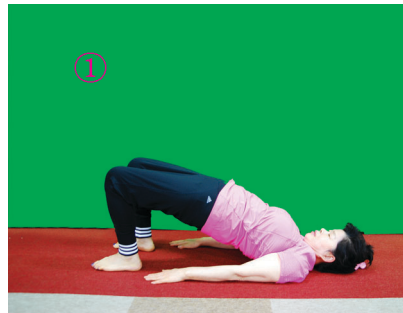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현대인에게는 특히 코어강화 운동이 필요하다. 나쁜 자세, 잘못된 운동법, 나쁜 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코어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척추가 비틀어지거나 복부 내장들의 기능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법에서는 코어가 '몸의 중심'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코어는 척추, 복부, 골반 등 무게중심이 위치하는 곳이며, 이곳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코어 운동이다.

다리자세

효능: 대퇴근을 충분히 늘려주게 되어 관절에 오는 긴장감 이완,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동작: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손바닥은 바닥으로 향하여 댄다.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위로 들어서 10초 유지 후 숨을 마시며 등, 허리, 엉덩이 순서로 천천히 내린다. 5회.



낙아라 비행기

효능: 척추 골반 내장기능 강화, 엉덩이 업. 위경락을 자극해서 소화기능을 원활히 해준다. 전신의 라인을 아름답게 해준다.

동작: 바닥에 엎드려서 호흡을 마시면서 머리, 양팔, 양다리를 위로 올려준다. 팔과 다리에 힘을 줘 10초 유지 후 숨을 내쉬며 천천히 내린다. 5회.

플랭크 자세

효능: 상 하체 강화, 복부 다리근육이 강해진다.

준비운동: 손목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간단하게 풀어준다.

동작: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두 다리는 모고 손바닥을 바닥에 놓는다. 무릎을 구부려 허벅지와 상체만 든다. 이때 팔꿈치도 편다. 마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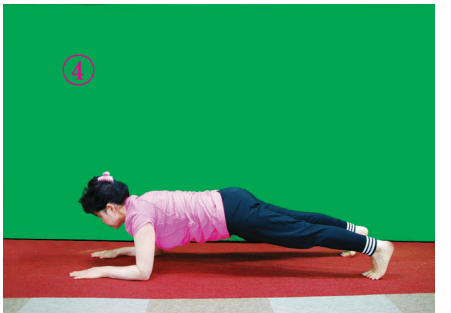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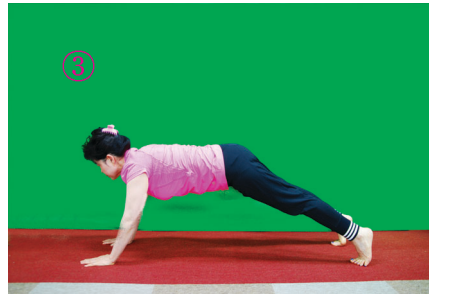


숨에 발가락을 세우고, 내쉬는 숨에 무릎과 정강이를 들어 올린다. 손바닥과 발가락으로만 유지한다. 이때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 엉덩이는 아래로 복부는 위쪽으로 끌어올려 등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게 유지하여 몸통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10초 유지 5회.

돌고래 자세 변형

효능: 복근강화, 다리에 더 많은 자극으로 다리 강화, 만성 허리통증, 요실금 예방, 다리 각섬미 도움.

동작: ③자세로 시작해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유지한다.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10초 유지한다. 5회.*



도덕경 해설



爲之者敗之위지자패지

내가 역지로 수행하려는 자는 실패하게 되고

도덕경 64장(2)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세상에 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든 간에 죽는다는 사실 앞에 사람은 실패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인생 최대의 오명은 죽음이다. 죽음을 넘어선 자만이 진정 성공한 자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역사가 또한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겠는가?

어떤 사람은 죽음이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며 인류 전체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것은 너무 한 일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와 같은 생각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좁은 생각의 범주를 가졌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과거보다 현재는 엄청나게 발전하였고, 미래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사실만은 불변의 진리인 양 떠돌지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하나의 추정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파악하여 해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수도요 학문의 길이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마음 저변에 깔고 가는 것은 행복이 목표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이라도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던 행복을 쟁취한 사

람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 불행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찾았다면, 곧 그것은 세계 만민에게 진리로서 공표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교과서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 전념하여 힘쓰고 노력해서 이미 쟁취한 사람이 수도 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 길을 찾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차원의 도덕경을 정독하신 독자께서는 어느 정도 행복의 실체를 손에 쥘 듯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본다. 이미 그 오묘한 진리를 살하고 있어서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행복을 구하려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자아의식(가아假我)이 되어서는 불가능하다. 나라는 자아의식이 도를 닦고 진리 탐구를 해왔던 그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이다.

지금껏 일관되게 주장한바 사람의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 하나가 욕심의 주체가 되는 가아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하나가 양심의 주체가 되는 진아(眞我)라는 사실을 철학과 심리학 종교 경전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을 내놓았다. 나라는 욕심의 가아가 뭐든지 하려는 것을 도덕경의 의미로 유휴의 행이라고 한다. 나라는 양심의 진

것은 무위의 행이 된다. 욕심의 주체가 되는 가아는 매사를 불만과 부족함을 느끼며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불행이 근본이 되며, 양심의 주체는 매사를 희생과 배움과 감사로써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선하고 진실되며 아름다운 행복의 주체가 된다.

현존하는 동서고금의 제 경전과 모든 철학의 근본 명제의 궁극하는 바는 다 마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요, 그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유휴의 행, 즉 나라는 욕심의 주체는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움직이는 일마다 부딪치고 깨지고 어그러지며, 사건 사고와 문제투성이로 항상 괴롭고 고통의 씨앗이 되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반대로 무위의 행은 나라는 자존심과 욕심이 없어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며 욕심 없는 마음으로 하니 항상 낮고 낮은 자세로 고요하고 맑은 정신과 가벼운 컨디션으로 바람과 구름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가 세속에 살피 세속을 초월한 도의 경지를 새로운 차원의 도덕경 해설에서 밝히고 있고, 그 길을 노자의 도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성인이요, 도인이요, 학문하는 자의 자세가 될 것이다. 일체의 수행과 학문의 참 뜻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爲之者敗之(위지자패지): 내가 역지로 수행하려는 자는 실패하게 되고

執之者遠(失)也(집지자원(실)야): 역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자는 더 멀어지게 되고.

是以聖人無爲也 故無敗也(시이성인무위야 고무패야): 성인은 내가 역지로 행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도 않고.

無執也 故無失也(무집야 고무실야): 집착이 없으니 잃는 것도 없소.

民之從事也 恒於其成事而敗之(민지종사야 항어기성사이패지):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항상 그것을 이루려 하다 실패하고요.

故慎終若始(고신종약사): 고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끝에도 조심하면

則無敗事矣(칙무패사의): 곧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오라.

是以聖人欲不欲(시이성인욕불욕):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 없음을 바라고

而不貴難得之貨(이불귀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教不教(學不學) 而復衆人之所過(교불교(학불학) 이복중인지소과): 가르침 아닌 가르침으로 (배움 없는 배움으로) 사람들이 지나쳐 버리는 자기 하물을 돌이켜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외다.

是聖人能輔萬物之自然(시고성인능보만물지자연): 그러한 고로 성인은 만물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되도록 도와줄 뿐이며,

而不能(敢)爲(이불능(감)위): 역지로 의지를 내세워서 행하려고 하지는 않소이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구세주로 출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뜨고도 못 보니 안타깝도다!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그럴수록 시민들의 생존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백년대계를 안고 오로지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여전히 진리 탐구가 최상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의 것이다. 따라서 죽지 않는 존재라야 진리라고 정도령은 말씀하신다. 그런 존재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종교의 목적을 진리 구현이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모두 "사랑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니 역시 진리란 영생의 신인 하나님의 대명사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다.

이 세상에는 이미 이기신 3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출현하신 지 30여년이 흘렀다. 그리하여 철학 같은 암흑의 세계를 평명한 세계로, 죽음의 조류로 영생의 조류로 바꾸고 계신다. 신전의 개척자이신 극기승자, 생미륵불, 전지전능자, 3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하신 이긴자 구세주이시다. 구세주께서는 오늘날 우주의 대권을 장악

하고 계시는 영계(靈界)의 수령으로서 또한 미립자 차원의 영점공간(靈點空間)의 지배자로서의 위세를 떨치시며 오늘날 영생의 묘약 이슬은혜를 간당없이 내리붓고 계신다. 영점공간이란 모든 정보와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갖추고 있으며,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 이유는 이곳은 무한한 정보창고요 영혼의 공간이요 신의 마음이요 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주요 종교들이 논하는 영생, 구원, 해탈 등의 은혜를 수여할 수도 있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양자물리학자들의 주장).



오늘날 우주의 대권을 장악하고 계시는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점공간의 지배자로서 신비의 무기인 감로이슬을 겸비하고 무적장수로서 위력을 떨치고 계신다. 만민에게 이 세상에 서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모든 곳에 다 계시며, 모든 것에 다 능통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야말로 영혼의 본체이신 다시 오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구세주이시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만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영도제단 : (010)6692-7582	울산제단 : (052)291-1849	순천제단 : (061)744-8007	충주제단 : 010-9980-5805	岐阜祭壇 : (0584)32-1350
수원제단 : (031)236-8465	김해제단 : (055)327-2072	진해제단 : (055)544-7464	정읍제단 : (063)533-7125	橫濱祭壇 : (045)261-6338	大阪祭壇 : (06)6451-3914
안성제단 : (031) 673-4635	대구제단 : (053)474-7900	영천제단 : (054)333-7121	군산제단 : (063)461-3491	神戸祭壇 : (078)862-9522	神奈川祭壇 : (045)451-3150
평택제단 : 010-9261-9974	마산제단 : (055)241-1161	사천제단 : (055)855-4270	대전제단 : (042)522-1560	下関祭壇 : (0832)32-1988	Philadelphia : (215)722-2902
부산제단 : (051)863-6307	진주제단 : (055)745-9228	포항제단 : (054)292-5455	청주제단 : (043)233-6146	久留米祭壇 : (0942)21-4669	London : (0208)894-1075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